

바스프(BASF)는 1865년 독일 만하임에서 프리드리히 엥겔호른이 설립한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초기에는 합성염료 제조로 출발했으며, 이후 질소 비료, 플라스틱, 정밀화학,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현재 바스프는 전 세계 90여개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35개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페어분트(Verbund)'라고 하는 통합 생산시스템을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을 비롯해 미국, 벨기에,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서 운영함으로써 원자재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극대화하여 연간 수억 유로의 비용 절감과 수백만 톤의 석유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We create chemistry for a sustainabl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과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BASF 루트비히스하펜 공장(독일)

바스프는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선도적 외국기업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 내 바스프는 영업 및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사무소 외에 여수, 울산, 군산, 안산, 예산, 온산 및 김천에 8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에 전자소재 R&D 센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노베이션 센터, CAE 연구소, 기능성 소재 디자인 연구소, 동탄에는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내 바스프는 국내 대표적인 외국투자기업이자 국내 Top 10 화학 기업이다.

한국바스프(주) 군산공장은 2003년 독일 루트비히스하펜 공장의 비타민B2(리보플라빈) 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설립되었다.

한국바스프(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타민B2는 발효기술을 이용한 고품질의 제품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우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FSSC 22000), 사료 품질경영시스템(FAMI-QS) 등의 인증을 취득하여 글로벌 제약, 식품 및 사료 기업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바스프㈜ 군산공장은 비타민B2 생산량의 약 97%를 유럽, 미국, 아시아 등의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 식품첨가물, 천연색소, 사료첨가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종합 비타민, 건강음료, 라면, 동물 사료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바스프㈜ 군산공장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불우 이웃 돕기 성금, 장애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바스프 키즈랩(BASF Kids' Lab) 등을 통한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바스프㈜ 군산공장 비타민B2 생산시설(군산지방산업단지)